



병사 봉급 33% 인상... 영창제도, 군기교육으로 변경

인사복지·정보화 분야



국방부는 올해 병사들의 봉급을 지난해보다 33% 인상 지급한다. 사진은 육군3군단 장병들이 인상된 봉급을 활용한 적금통장과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국방일보 DB

① 병 징계 가운데 영창제도를 군기교육 제도로 변경(2020년 하반기)

현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던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변경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② 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0년 1월)

국방부는 올해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금액을 확대해(1인당 연간 5만 원→10만 원, 본인부담 20%) 병사들의 자기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재난상황 시 군 대민지원 활동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2020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④ 간부 봉급인상 및 처우개선(2020년 1월)

간부 봉급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8% 인상하며, 총 6개 부문에서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⑤ 순직유족연금 인상(2019년 12월)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했다.

⑦ 분할연금제도 도입(2020년 6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기간(별거·가출 등의 기간 제외·5년 이상)에 해당하는 퇴역(상이)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했다.

⑧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2020년 1월)

임신 초기(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일수를 확대(5→10일)하고,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군인에게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⑨ 국방대 주말 박사과정 신설(2020년 1학기)

⑩ 장병 인공지능 교육 확대(2020년 2월)

군에 입대한 장병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시범 실시한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⑪ 입대 전·후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2020년 1월)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력단절 없이 병영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개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이버 지식정보방 PC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교조

정호영 기자

‘양보다 질’ 의식주 변화…실생활 공감형 정책 시행

군수·시설 분야

①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한다.

② 급식 개선(2020년 1월)

부대 회식 차원에서 먹는 삼겹살을 고정메뉴로 편성해 월 1회, 1인당 300g씩 생삼겹살을 제공한다.

또 훈련 후 가장 먹고 싶어 하는 품목으로 꼽히는 전복삼계탕의 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물고기와 조개, 갑각류 등 어패류를 비롯한 비선호품목은 감량했다.

③ 해·강안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2020년 12월)

국방부는 올 하반기까지 전국에 설치된 해·강안 경계철책 가운데 작전상 경계철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170km 구간에 첨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④ 군 시설 유지보수비 확대(2020년)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지보수비 증액을 추진해 올해는 적정 유지보수비의 93% 수준인 8211억 원(전년 대비 14.4% 증가)으로 확대했다.

내년까지는 적정 유지보수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⑤ 여군 필수시설 전량 확보(2020년)

국방부는 올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370억 원을 들여 여군 편의시설 542동을 설치하는 한편 227억 원을 투입해 전용 화장실 823곳을 지을 계획이다.

⑥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개선(2020년 지속)



국방부는 올해 장병들이 훈련 뒤 가장 먹고 싶어 하는 품목으로 꼽힌 전복삼계탕의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육군25사단 수색대 장병들이 전복삼계탕을 먹고 있는 모습. 조용학 기자

업체부담 줄이고 민간 기술 적극 도입해 혁신 ‘박차’

방위산업 분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태국 방콕의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 부스의 모습. 조용학 기자

① 방산원가 구조 개선(2020년 1월)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이윤율을 높였다. 또 13개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6개로 단순화하는 등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②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2020년 1월)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제도를 개선했다.

③ 경미한 성능개량사업 추진절차 개선(2020년 1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이나 작전운용 성능에 큰 변화가 없는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선행연구를 생략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기간·소규모 사업은 폐기지 예산 활용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④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제도 개선(2020년 1월)

‘체계-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실시해 체계기업(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 전체를 총괄·담당하는 업체)과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협업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발굴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⑤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통합 추진(2020년 3~11월)

방사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국방부의 보안감사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을 줄이고 방위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⑥ 신속시범획득 제도 신설(2020년 1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구매해 소요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군 운용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신설했다.

⑦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2020년 1월)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및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⑧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2019년 11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불공정 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조용학 기자

정호영 기자

첨단 과학기술 적용으로 강한 군사력 건설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해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진수한 국내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KSS-III). 조종원 기자

① 부대 개편 지속(연중)

올해에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 개편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육군은 2개 사단을 해체하지만 6개 사단의 편성과 전력을 보강해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군은 1개 특수임무대를 창설하고, 공군은 1개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② 현행작전부대 인력보강(연중)

상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GOP 및 해안경계, 방공감시·정찰 등 24시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현행작전부대의 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③ 상비병력 감축, 간부 및 민간인력 증원 지속(연중)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지만, 간부 1200여 명과 민간인력 4400여 명을 증원해 실질적인 전투역량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간부의 경우 숙련된 인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④ 전방위 위협 대비 첨단전력 지속 증강(연중)

우리 군은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16조6804억 원을 집행해 무인정찰기,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중형잠수함, 대형수송함,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⑤ 장군정원 감축(2020년 12월)

국방개혁 2.0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6명(전체의 17%)의 장군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31명을 감축했고 올해도 보급창장 등 민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 대상으로 15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⑥ 여군비중 확대(2020년 12월)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 집약형 국방환경변화에 맞게 여군 인력의 확대와 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체 간부의 7.4%까지 여군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상위 계급에 우수 여군을 적극 선발하며 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more\]](#)

정호영 기자

정예화로 병력감축 대응…행정은 스마트화

병무·예비군 분야

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②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7월)

입영 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진다. 오는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이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해진다.

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대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④ AI(챗봇) 기반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2020년 2월)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진다.

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2020년 1월)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 기술을 활용해 불편한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⑥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2020년 1월)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⑦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

서 50일로 확대한다.

⑧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⑨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2020년 6월)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⑩ 평시 복무 예비군, 비상근 복무 기회 확대(2020년 1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예비역 간부를 평시부터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에 79명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1023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769명까지 확대했다. [\[more\]](#)

정호영 기자



국방부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임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예비군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이 시가지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용학 기자